

<특 집 : 독서진흥 환경개선 및 진흥정책 모색>

## 독서환경과 독서진흥



안 찬 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transpoet@yahoo.co.kr

### 책, 읽는다는 것

책 읽기(독서)란 무엇인가. “독서(讀書)란 책을 읽는 행위”라는 매우 상식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읽는다는 행위는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읽는다’는 행위는 단지 종이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사진을 읽는다’ ‘회화를 읽는다’ ‘표정을 읽는다’ ‘세계를 읽는다’는 등으로 이어진다. 주체의 ‘읽는다’는 행위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독서문화의 양상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책,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과 연관된 책의 변화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는 새로운 미디어가 발달이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7일 일본에서 치쿠마쇼보(筑摩書房)가 주최한 ‘웹진화론(Web進化論)’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인터넷은 발전하지만 기존 미디어의 도태나 재편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은 근원적으로 겹치지 않는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논의 자체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오히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전자혁명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깊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는 전자 텍스트의 저작권 문제나 그 텍스트 이용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한 문제는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한쪽에서는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좀더 정치해질 것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견지할 수 있는가.

### 주체, 책 읽기, 독서교육의 문제점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의 뜻을 독자가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이면서 동시에 읽는이가 글쓴이의 뜻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유를 형성해나가는, 주체의 능동적인 과정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서인증제나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등의 문제점은 이러한 책 읽기의 본질, 즉 독서가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독서의 능동적인 과정이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창조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책 읽기를 통해 길러진 반성, 성찰, 비판의 능력은 책이 아닌 다른 매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문화, 세계라는 더 넓고 깊은 읽기의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책 읽기는 세상읽기이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 읽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동적이면서 창조적인 과정으로서의 책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독서는 어디까지나 자발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독서를 비롯한 문화적 활동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지, 직접 책을 읽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책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책 읽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웃은 그냥 둔 채 웃을 입을 아이의 키를 늘이거나 줄이려드는 억지와 다를 바가 없다.

### 왜 책 읽기인가

책 읽기의 일차적인 목적은 즐거움이다. 지금은 영상시대라 많은 사람이 책 읽기보다는 영상 문화와 갖가지 야외활동, 스포츠 등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있지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은 책 읽기만의 고유한 즐거움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책 읽기

의 즐거움을 알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와 지식의 획득이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가 소통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책을 통하지 않고는 심층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

세 번째는 책 읽기란 영혼의 문제, 즉 정신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책 읽기 자체가 마음을 갈고 닦는 일이다. 교양과 수양으로서의 책읽기는 최근 점점 더 경시되는 경향에 있기에 이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은 학문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 “학문하는 것은 모름지기 독서와 궁리”라는 것이 옛 선인(이이, 격몽요결)의 말이었다. 결국 독서란 사람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책 읽기의 목적 세 가지는 한 개인이 책 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일 터이다. 이를 사회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책 읽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 단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읽기를 통한 민주시민 되기, 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읽기이다. 시민들이 책 읽기를 통하여, 반성하는 주체, 성찰하는 주체, 비판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독서실태

‘국민독서실태조사’ 및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발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독서실태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독서율 및 독서량 : 성인의 경우에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도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계속 독서율이 낮아지고 있다. → 자라나는 세대의 독서이탈 현상, 이 현상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특수한 상황인가.
- 나. 독서시간 : 2005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NOP월드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독서시간은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이다. 인도인 주당 10.7시간, 한국인 3.1시간. 한편 2005년 KBS에서 전국 10세 이상 국민 중 3519명을 직접 방문 면접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이 6분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 다. 독서장애요인 : 첫번째 “시간이 없다”, 두번째 독서의 습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 라. 여가활용 시 독서 비중 :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여가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

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여가의 많은 시간을 인터넷 및 컴퓨터게임으로 보내고 있다. → 바람직한 여가문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

마. 도서구입 목적 : 성인의 경우 주로 실용서를 학생의 경우 주로 학습참고서를 구입하고 있다. →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읽을거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바. 사적인 영역의 도서구입비 : 도서구입비는 가정과 기업 등 사적인 영역의 도서구입비와 공적인 영역(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지난 2006년 1월 3일 통계청은, 2005년 3·4분기 전국 가구 서적인쇄물지출액(신문과 잡지, 그림·그림책, 교양서적 등이 포함/학습용 교재와 참고서는 제외)은 가구당 월 평균 10,397원으로, 신문구독료가 한 달 12,000원인 점을 감안하여 도서구입비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통계치를 발표하였다. → 각 개인들이 도서를 구입할 만한 동기 유발의 필요성.

사. 공적인 영역의 도서구입비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감소의 결과를 낳았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국력이 미국의 5.9%, 일본의 14%에 불과하다"(윤희운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대학도서관 분석과 시사점') "각 대학이 부동산 및 건축비용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가운데 도서 구입비는 전체 예산의 1%에 그쳤다"(경향신문 2006년 5월 2일자)고 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학교도서관 운영편람에서는 학교 경상 운영비의 5%를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3%를 자료구입비로 확보하라고 하지만, 학교도서관에 대한 기본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도서관 운영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 독서 환경 - 책임있는사회를 위한 물적 토대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물론이고 출판, 잡지, 인쇄, 제지, 서점 등의 영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판산업은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대략 3만5천종의 신간서적이 발행되고, 6조5천억 정도 규모로 세계적으로는 전체 국가적인 발전 수준과 비슷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출판산업이 아니라) 출판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양적이고 외적인 성장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출판문화의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과연 우리 시민들은 '읽을 만한 책'을 충분히 제대로 제때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

시민들은 자신들이 읽고자 하는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는가.

한편 도서관문화의 발전은 더딘 편이다. 최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는 꽤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서관을 독서실로 생각하는 인식은 아직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도서관을 정보, 문화, 교육의 중심센터이자 동시에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센터로서 주민자치, 참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생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대략 인구 10만명당 1관 수준인 514개에 불과하다. 최소한 5만명당 1관 수준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책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충실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운영자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도서관이 관리자 중심의 운영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된다.

### **독서의 일상화, 생활화**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읽기가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읽기 문화를 진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책읽기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다. 아주 일상화된 우리 삶의 풍경 속에 적극적으로 책읽기 문화를 끌어들이는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권장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서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만남 - 독서모임/독서클럽의 활성화도 꾀해야 한다.

### **독서진흥과 관련한 법과 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최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논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저작권법」 등에 대한 개정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전면 개정의 과정 속에서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가칭)」으로 분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바라건대 진정으로 도서관문화, 독서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기틀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독서문화 진흥의 원칙에 대하여**

여러 기회를 통해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때 우리가 생각해볼만한, 독서문화 진흥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의 독서할 권리)** 국민 개개인의 독서활동은 스스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일로서 고유한 권리이며 모든 국민은 소득, 계층, 성별, 교육 수준, 기타의 조건들에 관계없이 독서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
- ② **(독서문화 진흥의 원칙)** 국민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은 국민의 기본권(사상, 언론, 표현, 신앙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은 민주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자주성의 원칙)** 국민 개개인의 독서활동은 그 자주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독서활동을 바람직하게 함양할 수 있도록 특정한 책을 읽거나 읽지 못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요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④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원칙)** 국민에게 독서자료를 제공할 때 최대 범위의 사상, 의견, 관점, 판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자원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제공의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독서환경 정비와 지원의 원칙)** 국민 개개인의 독서활동은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감수성을 기르고, 창조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서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각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영역에서 스스로 창조적 기회를 창출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분권과 독서문화

지방으로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는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 실생활에 밀착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자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떠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권화는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독서문화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분권화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분권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독서문화를 일구겠다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분권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독서문화, 도서관문화의 성과를 후퇴시킬 우려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책읽기, 심층근대화와 문화권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독서문화의 질적 발전을 꾀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구축하는 일이다. '책읽기'는 단지 지식 획득, 교육적 수단, 여가 선용의 차원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사회적 평등을 확장하고, 책 읽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실현하며, 책 읽는 문화공동체로 사람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심층적인 근대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문화현장>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 <문화현장>에서는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 교육과 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 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 정보와 전달 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 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시민 개개인이 책을 읽고, 사유하고, 상상하며, 표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 권리이다. 또한 독서환경 개선과 독서 문화 진작을 위한 여러 차원의 공공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06)